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원일



벌써 4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인도의 습도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도 더위 속의 깨달음이 있기에, 아니 찾아야 하기에, 견뎌내기로 한다. 이미 15번을 방문한 인도지만 이번 16번째의 여행은 필자 개인에게 더위 밖의 남다른 의미를 던져준다. 물론 이번 인도방문도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델리의 아트페어와 심포지엄 행사에 전세로 주요 미술관계자들과 함께 VIP로 초대되어 참관 토론하는 과분한 영예를 누리고 있다.

주최 측이 마련한 4일간의 일정이 끝나고 행사장이라는 '공궤'를 탈출하여 시타르타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일상이라는 리얼리티로 뛰어들어 본다. 물론 필자 같은 평범한 존재에게 '고행'이나 '수행, 혹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미술, 혹은 '한국'이라는 공궤를 떠나 미술 밖, 한국 밖의 리얼리티를 '순례'하고자 할 뿐이다.

비둘기에게 매일 모이를 주는 선량하게 생긴 택시기사를 만났다. 그래서 그와 쉽게 친구가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인도에

진 빛과 미안함을 청산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서 주도한 일정을 마쳤기에 그동안 일에 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지마을과 케이 푸르 사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 난상토론의 핵심주제였던 탈

성숙을 넘는 숙성의 시간

해결적, 탈 칸트적 송고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탐과 발로 느끼고자 한 결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필자에겐 여행이 아닌 훈련이자 학습의 결음질이다.

새로운 친구가 된 택시기사 라게시 쿠마르가 새벽 다섯 시에 필자를 깨웠다. 물론 오늘도 어김없이 타지마을로 향하는 도로의 한켠에 차를 세우고 비둘기 모이를 꺼내들었다. 자신이 동물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자 예의라 한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필자를 끌어내어 함께 모이를 주라고 강권한다. 오늘 내 손위의 비둘기가 베니스의 산마

르코광장의 비둘기보다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산마르코의 관광객이 아닌 그저 보잘것없는 순례객의 손위라서 그런지 비둘기는 더욱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뽐내며 퍼덕인다. 불현듯 광주에서 먹던 갖김치(일명 갖지)가 떠오른다. 성숙의 시간을 지내고 숙성단계를 통과하여 내 손위에 놓여졌던 김치 말이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건설의 야심 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곳, 델리에서 200여년 전에도 존재했을 비둘기의 상징적 의미를 갖김치

와 오버랩시키고 있는 시간이다. 내겐 단지 평화나 자유의 의미를 벗어나는 깨달음과 번민의 시간이다. 택시기사 라게시는 산마르코의 비둘기는 울고 있는 것이고 여기 비둘기는 '노래'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성숙을 위해 그토록 발버둥쳐 왔다. 동인도 회사를 건설하고 식민지배를 일삼아 세계의 태양을 '여지'로 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며 '영국인사', '젠틀맨'을 칭안해냈다. 인도의 원숭이를 닮은 자의 결혼식을 황태자의 '세기의 결혼식'이라 하여 전

세계인이 속속이며 쳐다본 기억이 난다. 그 세기의 결혼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고 미국식 '들보잡'(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오바마의 시대가 왔다. 필자도 스스로를 '자발적 들보잡'으로 규정한다.

성숙을 넘는 숙성의 시간이 있다. 성숙은 인도의 고통과 죽음, 시타르타의 깨달음을 좇는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후이나 비로소 성립되는 시간의 개념이다. 갖김치도 썩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새롭게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제 맛을 낸다. 성숙은 성숙의 시간의 길목에 서서 또 다른 성숙을 임태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오늘 목격하고 있는 델리의 절인들과 한끼를 나누는 자동차 경적 소음, 쓰레기 더미를 걸고 부패와 혼란의 세계의 태양을 '여지'로 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며 '영국인사', '젠틀맨'을 칭안해냈다. 인도의 원숭이를 닮은 자의 결혼식을 황태자의 '세기의 결혼식'이라 하여 전

오늘 이 시간 필자를 태우고 가고 있는 자동차는 과거의 혼란, 이슬람세력의 무굴제국의 왕 사자자가 세운 타지마할의 시간을 향하고 있다. 오늘의 성숙을 위하여 어제의 고통과 죽음, 성숙의 비극적 결말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비밀의 우물을 길어내는 두레박 속의 시간 말이다.

(스위스BSI재단 상임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양만권 통합 논의 합의를 주목한다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지자체 시장이 지난 28일 통합과 관련한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정부의 자유통합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과 실현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만권 3개 단체장은 이날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등의 3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 합의가 "통합에 합의했다"는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회차제의 일부는 통합논의는 자칫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통합은 시대의 추세다. 현재의 행정조직과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도시의 통합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미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

광양만권이 통합할 경우 전남민국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 최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수의 해양관광, 순천의 교육문화, 광양의 철강산업 등 3개 지역의 잠재력이 통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여수엑스포와 맞물리면서 남해안산벨트사업의 핵심거점지역, 나아가 국내 남중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주민의사가 가장 먼저다. 반대여론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주의적 통합 논의는 배제돼야 한다. 통합의 장단점, 절차와 과정,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설명되고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정치권이나 기득권층의 주장이 마치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인 양 호도되거나 왜곡되는 일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광양만권 통합은 주민 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통합이다.

서민·중산층 외면한 내년도 세계개편안

최근 확정된 내년도 세계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서민에 대한 세금을 줄였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일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다.

논란의 핵심은 고소득층을 겨냥해 내놓은 증세안의 상당수가 오히려 서민·중산층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세계 개편안이 대표적인데,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결국 집값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역시 수요가 많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값만 높이기 십상이다.

간접세 확대는 서민층이 포함된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마련이다. 자동차운전허용 수강료와 예연동물 진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중고자동차매시 부가세 공제비율 축소,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 등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세개편 현실에 접목됐을 때 어떤 과급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계개편안은 친서민 기조 강화에 역행한 대목이 적지 않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세액공제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계 개편안은 재검토해야 한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일이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나라 빚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불요불급한 세출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이다. 세금을 늘리기에 앞서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광희

청년실업이 심각한 광주, 노후화된 전남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광주시나 전남도 차원에서 작산업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인재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인재육성은 기존의 중앙 집중관리 방식에서 지역주체 관리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이 인재육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있는 인재육성 시스템을 개발, 가동시키는 것이 각 지역 공통의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성

에서 유가를 본래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해서 관광수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행복마을 지정은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전략적인 지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남도 문화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행복마을로 지정, 행복마을이 남도문화 체험장이 되는 동시에 강인들의 일터가 되고 교육장이 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행복마을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민박과

기고



안기석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인 21세기는 도시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하는 도시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간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상호협력하여 상생을 위해 손을 잡는 "윈-윈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선화하

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양 지역의 의료산업이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의 '2014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구시의 '2011세계교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적 행사뿐만 아니라 영호남 철도건설 공동추진, 내륙철도과하벨트 구축과 같은 각종 현안사업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98년부터 영호남 교류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협력회의, 동서교류협력재

상생발전을 위한 'Win-Win전략'

는 일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충남도와 인천시의 경우에도 '2009인전세계도시축전'과 '2010대백제전'이라는 두 지역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 또한 6월27일 서울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2009세계광엑스포'와 '서울디자인올림픽' 상호교류 및 관광마케팅 공동추진 등 16개 사업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7월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구시와 양 지역의 의료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광주, 대구 양 지역의 의료연구 개발기관 간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기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키로 하였다.

우리 시는 광·자동차·디지털 가전산업 등 3대 주력산업과 첨단부품소재·신에너지·디자인·문화콘텐츠산업 등 4대 프로그램 및 사업위주로 추진되는 인재육성은 한계가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중앙대 강사>

단운영, 대학생의 교류에 의한 광주와 대구의 협력은 영호남 화합을 넘어 양 지역의 차별화된 도시기능을 서로 보완하여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 도시간의 협력을 위해 이제는 NGO 단체의 상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지난달 말 NGO센터를 개소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두 도시간 NGO 단체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바로 상생발전 전략이며 양도시간의 약점과 강점을 상호보완 강화하는 방향의 유익한 협력관계는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살리기, 녹색시장 선점,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3대 과제 실현에 도시간의 끊임없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방안 모색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원원전력으로 우리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1등 광주 건설"로 우뚝 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은 최적의 일자리창출 사업

을 대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남도 문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립의 국가적인 지원과 그로 인한 세계적인 관심은 광주·전남에 오랜만에 찾아온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이다. 광주·전남은 향토문화 예술기반이 풍부하고, 전통 음악, 미술, 무용, 옹기 등 문화예술의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기반으로 지식기반사회 최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문화예술 관련 장인들도 지역 내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고급예술인력양성이 기반을 다져나가는데도 유리하다.

일례로 전남도가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과 연계, 남도문화를 네트워킹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직 하다. 18개 행복마을에서 290개의 신축 한옥이 건축되고 있고, 200개의 행복마을이 추가 지정되었다. 22개 동 신축한옥 중 78%인 228동이 민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민박도 122동에 달한다. 실제 올 여름 휴가 때 행복마을 한옥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창출,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실행 주체도 군 단위, 민간위의 지자체에서 전남도 차원의 남도문화 산실로서 권역별, 예술 분야별 특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된다.

광주와 함께 상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것 또한 과제다.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광주는 인프라 구축의 구심점과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광주권에 있는 문화자원과 전남 권역의 문화적 테마와 함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배울거리, 즐길거리, 일할거리를 한데 어우르고 남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은 남도문화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에서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시적이고 제한된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민박도 122동에 달한다. 실제 올 여름 휴가 때 행복마을 한옥

차 사고시, 견인차-공업사 간의 사례비 결국 내 부담

며칠 전에는 아내가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다. 우리가 미처 쟁길 겨를도없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빼려고 하기에 내가 "단골 정비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져"며 정소와 공업사 이름,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

나는 아내를 태우고 바로 공업사를 갔다. 그런데 벌써 와 있어야 할 차가 안보였다. 혹시나 하여 우리 쪽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 견인차 기사의 전화로 연락을 취했더니 차를 이동한 정비업소에 끌고 간 게 아닌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자기네 전문 업소

가 있고, 그곳에서 수리를 해야만 견적이 싸게 나오니까 자기네를 믿고 거기에 맡기는 게 어떨겠느냐고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닌가. 내 옆의 공업사 직원이 웃으면서 "견인차들이 공업사에서 견인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하고 약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러줬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그 사례비를 결국 차수리비에 포함한다는 얘기과도 같은 일이다. 소비자들만 모든 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원자재 값 하락, 생활물가와 연동돼야

작년 말가부 가격이 폭등한 뒤 제과점 빵 값도 마구 올랐을 때 그저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다 알고 있는바 처럼 지금은 국제 밀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빵 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 이는 빵 값에도 분명 거품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

얼마 전 뉴스에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국제 밀 가격은 1년 동안 55%가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급등한 환율을 반영해도 국내 수입가격이 36%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때는 KTX처럼 오르고, 내릴 때는

꽤폭도 안 하니 주부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정부가 유류주조 합리화를 얘기하고, 가격 결정시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제멋대로 오르고 내릴 때는 요지부동인 이런 악습적인 물가구조를 바꾸어야 바란다.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환율이 치솟고,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면 또 덩달아 물가가 치솟는 상황은 조금 이해한다. 그러나 안정된 이후의 한변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식품가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준우·광주시 서구 마죽동

無等鼓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다 보니 기를 써봐도 생활은 제자리를 맴돌 뿐 나아질 기미가 없다. 저축이나 노후준비는 언감생심이다. '내일'을 살피며 여유조차 없다. '부지런한 가난뱅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그들이다.

직장인 대부분이 자신을 '워킹 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킹 푸어 인지 정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1%가 자신을 워킹 푸어라고 여겼다. 그 이유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해서'(70.3%)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3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국내 근로빈곤층은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이 정규직 수를 줄이고 파견·계약·위탁사원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88만원 세대'나 편입직,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광주일보 8월 12~14일자 '청소년 근로자들'이 유년' 시리즈 참조>

일본의 이코노미스트인 카도쿠라 다카시는 저서 '워킹 푸어'에서 근로빈곤층이 늘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진단했다. 충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소비가 부진해져 기업의 생산활동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난 속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등골이 휘도록 일하면서도 저임금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자리는 또 다른 '명에다'. 실제 위주의 일시적 일자리보다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빈곤층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워킹 푸어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